

소아 급성상악골 골수염의 1례

중앙의대

홍영호 · 권평중 · 김종환

상악동의 발육이 미숙한 유아의 상악동염은 성인에 비하여 동점막의 변화가 심하며 동의 자연개구부가 폐쇄되면 쉽게 동속에 화농이 일어나고 골 변화를 잘 일으키며 골막에 해당하는 심층의 결체조직은 동주위골 벽의 골수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점막의 화농이 쉽게 상악골 골수염이 될 수 있다. 또 이러한 변화는 골 변화 뿐만 아니라 주위조직에도 심한 변화를 일으킨다. 저자는 5세 소아에 있어서 급성 상악동염에 병발한 상악골 골수염 및 안와 봉와직염 1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前頭洞 粘液囊腫

國軍首都統合病院

박병옥 · 노영식 · 소장영 · 김영길 · 김선우

著者들은 左前頭洞에 發生한 粘液囊腫의 1례를 經驗하였다기에 이에 報告하고자 한다.

24歳의 男子 軍人은 頭痛, 左側 眼球突出, 左視力障礙, 間歇的인 左鼻出血을 主訴로 1980年 5月 16일 國軍首都統合病院 耳鼻咽喉科에 入院하였다. 診察所見上 左鼻甲介와 鼻中隔의 所見으로 血性斑點이 肥厚된 中鼻甲介에 散在되어 있었고 鼻中隔은 右측으로 弯曲 상태이며 內眼角쪽 眼窩內에 圓形平滑한 고무性的 無痛性腫脹이 突出되었으며 左眼窩 内容物은 側方으로 밀려 複視를 동반한 脫出症을 나타내고 있었다.

X-線 所見上, Cald-Well과 Water's View 所見은 左眼窩과 左前頭洞의 內側에 濕慢性 彈影을 나타냈으며, X-線 斷層撮影上 所見은 壓迫摩爛으로 起因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左前頭洞에 비교적 뚜렷한 外側緣과 희미하게 증가된 腫物陰影 그리고 좌측 眼窩上 內緣의 소실이 보였다.

이 환자는 Lynch-frontal approach 手術로 제거되어 治療된 바 문헌적 考察과 함께 報告하는 바이다.

巨大한 前頭洞骨腫의 1례

釜山浸禮病院

李俊熙 · 金伯純 · 田炳權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發生하는 骨腫은 아주 희소하나 副鼻洞에서 發生하는 骨腫은 이 부위의 良性腫瘍中最 많으며 前頭洞에서 가장 好發한다고 한다.

骨腫은 30代에서 가장 好發하며 組織學的으로 骨髓가 硬性인 것, 軟性인 것, 混合型인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發生原因으로는 間胚細胞 腫瘍說, 外傷說, 炎症說 등이 있다.

최근, 저자들은 좌측 前頭洞의 巨大한 骨腫으로 因해 眼球突出 및 眼球下降을 同伴한 44歳의 男子患者에서 成形的 前頭洞 수술로 腫瘍을 제거하고 그 缺損部位를 脂肪組織으로 移殖하여 좋은 結果를 얻었기에 문헌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Wegener氏 肉芽腫

국군수도통합병원

조정욱 · 황명순 · 윤치훈 · 이상도 · 김선우

Wegener氏 육아종은 자가면역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아직껏 확실한 원인은 불명인 매우 드문 병치의 질환으로써 상기도 특히 비강이나 비인강에 괴사, 괴양성 병변 또는 괴저성 육아종 병변을 일으키며 더욱 진행되면 폐, 신장 및 혈관등을 침범하여 신사구체 염과 전신적 괴저성 혈관염 등 병변이 광범위하게 파급되며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다핵 거대 세포가 보이는데 대개 6개월내에 사망한다. 병리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Wegener氏 육아종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적 고찰과 아울러 보고하는 바이다.

Wegener씨 육아종증 1례

중앙의대

박성준 · 권평중 · 김종환

Wegener씨 육아종증은 1939년 Wegener가 ① 상하호흡기의 혈관염 및 괴사성 육아종, ② 전신적인 혈

관염, ③ 국한된 퍼사성 사구체신염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Rhinogenic Granulomatosis라고 명명한데서 유래되었다. 초기에 이 질환은 몇 달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질환의 한정된 형(limited form)은 전형적인 형(classic form)에 비해 일반적으로 양성인 경과를 한다고 인지 되었다. 병리학적으로 이 질환은 한번의 조직생검으로 진단하기 힘들며 간혹 부검에서 확진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본교실에서는 최근 심한 시력장애, 청력장애를 일으킨 Wegener씨 육아종증 1례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문현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 3 4 —

舌尖部에 發生한 Neurofibroma의 1例

서울衛生病院

金永福·金聖淑·金洪權·朴秀萬·金貞姬·李基性

Neurofibroma는 身體 어느 部位나 어느 神經에서 도 發現된다. 이 瘤瘍은 徐徐히 成長하는 良性腫瘍으로써 耳鼻咽喉科 領域에서는 聽神經에 가장 많이 發生하고 있으나 口腔 및 咽喉頭에서는 比較的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Neurofibroma는 單發의으로 發生할 수도 있고 또 Neurofibromatosis症候群의 一部로써 나타날 수도 있다.

患者는 54歳 女子로써 10年前부터 舌尖部에 그 크기가 점점 增大되는 無痛性 瘤物이 있어왔으며 來院時엔 땅콩크기 만큼 자란 瘤物로써 異物感을 主訴로 하여 本院 外來에서 初診되었다. 이 瘤物은 舌尖部에 堅固하고 周圍組織과 明確하였으며 觸診時 無痛性이었고 淡黃色을 띤 고무덩이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 瘤物은 檢鏡結果로 Neurofibroma로 確診되었으며 局所麻醉下에 外科的 摘出術을 하였으며 現在까지 瘤瘍의 再發은 없었다.

— 3 5 —

두경부의 Adenoid Cystic Carcinoma

전주예수병원

박준식·설대우

1859년 Billroth가 부비동에 발생한 종양을 "Zylin-drome"이라고 처음 명명한 이후 cylindroma, basaloma, basaloid adenoma, cribriform adenocarcinoma 등으로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adenoid cystic

carcinoma라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종양은 주로 두경부의 타액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그외 기관, 폐, 유방, 피부 등에서도 드물게 생긴다고 한다.

이 종양은 근치수술과 같은 광범위한 외과적 절제 후에도 국소재발이나 원격전이가 많으며 방사선 치료로서 완전치유는 불가능 하나 종양의 축소와 통통의 소실등 경감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여 주는 것이 그 특징이다.

저자들은 1963년 1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전주 예수병원에서 진단받은 adenoid cystic carcinoma 44례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동기간의 두경부 악성종양중 3.8%를 차지하며 타액선 악성종양중 40%였다.

2) 가장 흔한 원발장소는 구개, 악하선으로 각각 8례이며 그외 상악동이 6례 비강이 5례, 이하선, 설부위가 각각 4례였다.

3) major gland가 13례(31%), minor gland가 29례(69%)였다.

4) 성별은 남자 21례, 여자 23례로 남여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5) 연령빈도는 19세에서 78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50세였다.

6) 초진시 종양의 크기는 4~6cm가 10례로 가장 많으며 임상적 경부 임파전이가 7례, 원격전이가 1례였다.

7) 27례에서 근치수술을 시행 하였으며 이 중 14례는 수술과 방사선 병용 요법을 시행하였다.

8)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던 29례에서 gross 3-year survival은 27.6%, determinate 3-year survival은 44.4%였다. 이 중 근치수술 받은 12례 있어서 3-year survival rate는 58%였다.

9) 29례중 10례에서 치료후 국소 재발을 보였다. 치료와 국소 재발 간의 기간은 3개월에서 88개월이며 이 중 3례는 5년 이후였다.

10) 치료후 원격전이를 보인 것은 3례이며 전이 장소는 모두 폐였다.

— 3 6 —

Midline Granuloma의 방사선 치료 및 Steroid 병용요법

전주예수병원

강현영·박준식

상기도에 오는 Midline Granuloma는 비강, 부비동

A Case of the Wegener's Granulomatosis

J.W. Cho, M.D., M.S. Hwang, M.D., C.H. Yoon, M.D., S.D. Lee, M.D., S.W. Kim, M.D.

Dept. of Otolaryngology, Capital Armed Forces General Hospital, Seoul, Korea

The Wegener's granulomatosis is a rare disease of unknown etiology characterized by ulcerative, necrotic lesion of the upper respiratory tract, progressive pulmonary and renal involvement, and death in a period six months.

Relentless progression with rapid death resulting from renal involvement and failure is the usual outcome, but limited forms with confinement to the upper respiratory tract are seen.

The authors, recently, have observed a case of Wegener's granulomatosis which was confirmed as pathologically, so present this case with a brief review of the literature.

A Case of Wegener's Granulomatosis

Sung June Park, M.D., Pyeong Jung Kwon, M.D., Choong Hwan Kim, M.D. PhD.

Dept. of Otolaryngology,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Wegener's granulomatosis is characterized by 3 criteria:

1. Necrotizing granulomas with vasculitis of upper and lower respiratory tracts 2. A systemic vasculitis 3. Focal necrotizing glomerulitis.

This disease is one of the nonhealing disease in the otolaryngologic and ophthalmologic fields.

A 48years old Korean male patient was

seen with the complaints of nasal discharge, foul odor and frequent nasal bleeding.

The patient was admitted after biopsy of the nasal cavity which diagnosed tuberculous granuloma, for biopsy of the maxillary sinus.

After biopsy by Caldwell-Luc's approach this patient was complained with severe headache, visual impairment and cough.

And so this patient was readmitted for further evaluation.

Generally, the diagnosis was made after autopsy sometimes several years later after reevaluation of the case.

Tuberculous granuloma was the pathological diagnosis on the basis of resected material in various cases.

The correct diagnosis was made at autopsy occasionally.

It is our intention to present this case with literature review.

A Case of Neurofibroma on the Tongue

Young Bok Kim, M.D., Sung Suk Kim, M.D., Hong Kwon Kim, M.D., Su Man Park, M.D., Kee Sung Lee, M.D., Jung Hee K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eoul Adventist Hospital

Neurofibroma are slow growing benign tumors arising from the neurilemal sheath (Schwann cells) and fibroblasts of the peripheral nerve.

This benign tumor may occur as a solitary lesion or as a part of the syndrome of neurofibromatosis.

The neurofibroma of oral tissues is rare in otolaryngologic field and usually presents as a firm, elevated, nonpainful lesion that shows the usual histologic findings of a neurofibroma or neurilemmoma.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a neurofib-